

해남군청사 이전 완료, 신청사 시대 '새로운 도약'

군청사 7층·군의회청사 5층 규모 역사관·북카페·대회의실 등 조성

해남군 신청사 이전이 완료됐다. 군은 지난 8월 신청사 준공 후 1개월여의 시험 가동과 부서 이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신청사 이전은 지난 8월 30일 문서고 이전을 시작으로 1일 3~4개 실과가 이전하고 9월 11~12일 주말 동안 마지막 군수실·부군수실 이전을 마지막으로 완료됐다.

'자랑스런 군민과 함께할 희망 100년의 시작'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착공한 신청사는 연면적 1만 8천 601㎡, 군청사 7층, 군의회 청사 5층 규모로 완공됐다.

군청사는 1층 모자휴게실과 주민 소통공간, 2층은 역사관 및 북카페, 대회의실 등 주민친화공간이 들어선다.

3층은 직원쉼터와 옥외휴게공간, 4~6층은 직원 업무공간, 7층은 cctv 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구내식당이 들어선다.

지상 및 지하에 13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돼 있다.

군 의회청사는 1층 주민소통실과 의회로비, 2층은 재무과 사무실, 3~5층은 해남군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 개인의원실 등이 들어선다.

해남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공사기간 군민불편사항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척식을 잠정 연기하고 13일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1층 북측 현관에서 간단한 현판제막식 후 신청사 업무를 시작했다.

/윤규진 기자



해남군은 지난 8월 신청사 준공 후 1개월여의 시험 가동과 부서 이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신청사 이전은 지난 8월 30일 문서고 이전을 시작으로 1일 3~4개 실과가 이전하고 9월 11~12일 주말동안 마지막 군수실·부군수실 이전을 마지막으로 완료됐다. /해남군 제공

보성, 사회단체 간담회 성료

보성군은 지난 13일까지 7월부터 시작한 지역 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30개 단체가 함께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주요 군정 이슈와 단체 활동 상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역 발전과 단체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 세션에 큰 호응을 보였다. 보성군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군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사회단체와 간담회는 상생을 만드는 동력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자율방범보성군지회 이용구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보성의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이었다며 사회단체 모두가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활기찬 보성군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성 기자

고흥, 엄마건강 아기튼튼 영양식 만들기 다시마·소고기 등 고흥산 재료 활용한 요리교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9일부터 13일(3일간)까지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취업실습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활용한 조리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아섭취불량 등) 있는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해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실습은 보건소 전담 영양사가 강사로 나서며, 첫날은 신도불이 고흥산 다시마·소고기 등 영양가 높은 재료로 면역력을 올리는 이유식을, 둘째 날은 보충식품인 우유를 활용한 유아간식인 한천우유젤리를,

마지막 날은 코로나 19로 지친 임산부를 위한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고구마 라떼를 만들었다. 또한, 영양표시 확인하는 법과 유아기 편식 예방을 위한 팁을 알려주며 먹어 보고 느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해 사업 총 수혜자는 164명으로, 빈혈율은 70.9% 식습관 태도는 36%가 개선됐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133명으로 연말까지 165명이 넘을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충식품 보관방법, 대상별 식생활 지침도 자세히 설명해 영양교육에 더 신경쓰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백신으로 최고인 건강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석 기자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1km→500m...주민·관광객 불편 호소

진도군의회가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됐지만 취약한 기반시설,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진도군의회는 안전한 배길(항로) 운항을 위해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배 부의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추석 목제품 할인 판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체 생산한 목제품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편백 엔드그레인 도마, 편백 목침 등 생활용품 위주로 30일까지 한정 수량으로 진행한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최첨단 레이저 장비와 CNC 기계를 통해 다양한 목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목공예 기능인 양성반과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을대에는 홍보전 시장을 조성해 목공예 기능인 양성반 교육에서 제작한 목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목제품은 목재산업지원센터 1층 갤러리카페(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33)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군정 발전 이끌 '아이디어 공모' 10월 31일까지 실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완도군은 10월 31일까지 '2021년 완도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 전반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모두가 잘 사는 희

망찬 미래 완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인구, 기후변화,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보건·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완도 군정에 관심 있

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 공모 제안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상장과 시상금(금상 7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나영 기자

황금사과

**청정 옐로우시티 장성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
건강한 밥상의 시작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옐로우시티 장성군